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시편 119:105

김요셉 목사님

서론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르게 가게 된다. 예수 믿으면 방언 받는가? 예수 믿으면 응답을 받는가?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응답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응답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믿으면 공부를 잘 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보다 응답으로 가게 된다.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우리가 응답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안 전할 때도 있게 된다는 말 아닌가. 우리의 기준은 믿음이어야 한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신비, 응답, 능력,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2)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증거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증거는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요일5:11-12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다. 구원의 증거는 ‘함께,’ 이것밖에 없다. 구원의 증거를 자꾸 응답에서 찾으려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래도 구원받았으면 뭐 좀 ~~다워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3) 이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보라. “전도도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응답 이야기를 말한다. 이게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여긴다. 여러분, 잘 들어보라. 너무 중요하다. 구원의 증거, 전도할 때 가져야 할 증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다. 전도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응답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응답받은 것 전하는 게 아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가, 어려운가. 응답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하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는 못 전한다. 나보다 공부 잘 하는 사람한테는 못 전한다. ‘예수 믿으니까 자녀가 잘 되더라’ 하면, 하버드 대학 다니는 자녀 있는 집에는 전도 못 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끼워넣는다. “그래도 말이야.”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응답을 체험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이다. 전도가 쉬운가, 어려운가? 아주 쉬운 것이다. 남천초등학교에서 전도해서 제자를 세워서 졸업시키고, 이제 대를 이어서 5학년 아이들과 축구를 시작했다. 한 아이가 자꾸 이름이 뭐냐고 하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이름이라고, 맞춰 보라고 했더니, “사무엘? 골리앗?” (웃음)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어봤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아주 이야기를 잘 한다. “하늘에서 아주 완전 잘 계세요.” (웃음) 보고 있는 중이다. 축구를 때마다 나를 부르는데, “골리앗!” (웃음) 우리는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 오직 예수다. 부하거나 빈하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오직 예수 전해야 한다. 그 뒤에 응답은 주시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응답에 걸려 있으면 전도는 안 된다. 전도와 상관없는 삶이 된다.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답을 내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구원의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그래서 계속 구원의 길 메시지만 한다. 그게 맞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길을 주시지 않았다. 행4:12이다. 응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 전하는 것이 전도다.

1. 말씀의 권위

말씀은 길이요 빛이라고 했다. 이 교제는 읽기만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빛인가? 말씀의 권위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다.

(1) 원전하여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인가? 구원 얻는 복이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완전한데, 이것은 읽고 지키라는 게 아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전부 복음으로 봐야 한다. “복음은 완전하여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다. 성경 전부가 그리스도 이야기 아닌가.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구원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2) 증거를 구하여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3)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이다.

(4) 금보다, 은보다 가치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5) 천지가 다 주의 규례로 되어졌다. 천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6) 주의 말씀을 폐할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하신다.

(7) 말씀을 붙잡을 때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이 없어지게 된다. 말씀 안에 전부 다 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요,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2. 말씀의 지혜와 지식

나는 골2:2-3을 확실히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나는 제발 부모님에게 부탁한다. 램네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라. 학원은 엔간히 보내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무지가 깨어진다. 이 지혜,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 목회자들이 다 고백하지 않는가? 예수 믿으니 되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 램네프들도 그 삶을 살아가면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안 믿으니까 전부 자기 규례대로 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이다.

(1) 이것이 사람보다 훨씬 앞서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2)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보다 지혜가 더해진다. 세상 것과 반대다.

(3) 순종할 때 노인보다 명철해진다.

(4)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한다. 그래서 모델이다. 주를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이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예배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사는데 공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확실히 믿어라.

3. 말씀의 세 가지 목적

(1) 하나님의 사랑이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부족, 죄와 허물을 깨닫고, 거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원이다.

(2)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창조주시다. 우리 신앙의 발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3)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66권 성경은 전부 복음을 말한다. 전부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단 한 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것이다. 요20:31,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 길

(1)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야 한다.

① 예수님이 곧 길이시고(요14:6, 벰전3:18),

② 예수님이 곧 빛이시다(요1:11, 행10:38, 엡2:1, 2, 3).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③ 말씀 속에서 빛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해야 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은 바로 복음의 빛이다.

④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길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창3:15,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 속에서 자꾸 찾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한다. 장로님들이 예배를 나와야 한다. 수요예배도, 금요기도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는 소원이 핵심 가는 차량이 부흥해서 대형 버스를 사는 것이다. 자꾸 예배를 나와야 한다.

(2) 이 길과 빛을 찾아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① 요8:56, 아브라함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유월절 사건이 뭔가? 예수 피를 바르는 순간 완전 해방된 것이다.

② 이순재 씨 말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피 발라서 살았다. (웃음)

③ 행3:1-10, 은과 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앓은뱅이가 일어난 것이다.

④ 행28:31,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⑤ 골1:13,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인도하는 그 능력이다.

⑥ 행27:24,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예비하신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2년째 축구하니까, 흑암이 꺾인 게 느껴진다. 일단 쫓겨나지 않는다. (웃음) 둘째, 안 싸운다. 옛날에는 겁나게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우니까 너무 편하다. (웃음) 지금까지 땅을 밟은 것이 헛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흑암이 꺾였구나 싶다. 여러분, 계속 가 보라. 재미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⑦ 사60:1-3,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빛이 있다.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숨겨져 있다.

(3) 어떤 삶이 살아지는가?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인생 안내서인 예수 이름을 알게 하고, 흑암의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이 속해 있는 것이다(마6:33).

결론

(1) 많은 것이 발전하고 있다.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결

핍된 시대다. 전부 좋아진다. 없는 게 없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이 지역에 전부 좋아지는데 영적인 것만 없어진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이 전달된다. 그래야만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이유가 발견된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전도를 절대 못 한다. 다 나보다 잘 살고 다 우리 집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 이 시대가 풍요로워지지만 영적으로는 결핍되어 있다. 중학교 올라간 램네프가 말했다. 1주일 다니니까 중1 아이들이 담배를 자기 앞에서 피더라고 했다. “너도 한 대 안 하나?” 하더라는 것이다. 나한테 와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더라. 잘 본 것이다. 다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봐야 한다. ‘이놈 새끼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한다.

(2) 그래야만 오직 복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현장에서 오직 복음 전하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복음이니까. 아주 간단하다. 영적인 문제, 해결책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리스도. 그게 맞다. 그러니까 전도 하러 가면, 증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신천지 구천지, 모든 종교가 다 저것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뭘 말해야 하나? 오직 복음. 같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3)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다. 캠프가 지속되어야 한다.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확실히 봤다. 교회 옷 입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빛 되신 그리스도, 길 되신 그리스도 전하는 캠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심방 끝나면 매일 캠프하려고 한다. 학교 정해서 계속 가니까 계속 영접이 일어나는 것이다. 매일 캠프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18개 초등학교 매일 캠프해야 되겠다. 걱정하고 있다. 같이 갈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면 바로 따라와 주시기 바란다. 계속 눈에 보이는 응답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확실히 복음 가진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캠프해야 한다. 월요캠프 화요캠프 수요캠프, 매일 캠프를 계속해야 한다. 가서 놓고, 재미있게 놓고, 복음 전하고.

(4)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지교회 생길 때까지다. 그 지역에 완전 지교회당이 생길 때까지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본교회보다 더 큰 지교회당의 응답을 받아서 파송받는 것이다. 완전한 전도운동을 체험하고 거기에 파송받는 것이 내 기도제목이다. 나는 심방가면 반드시 이야기한다. “장로님 인생에 지교회당을 만들고 가라. 만들기 전에는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지교회 지어지면 거기에 이름 써 주겠다. ‘누구누구 장로 기도도 시작!’” (웃음) 정확하게 이 기준 가지고 있으면 아무 것도 상관없다. 욕 먹어도 상관없다. 영적 문제, 오직 복음이 확실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매일 캠프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전해야 하는가? 지교회당 세울 때까지. 램네프들이 계속 와서 말씀 듣고 놓고 하는 예배당을 세우고 싶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못 하니까.

요즘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시는구나 싶다. 누구를 보든지, ‘아, 저 친구가 예수 믿고 있을까. 저 지역에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저 초등학교생이 복음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 ‘지역에 가면 대표적인 지교회 세워서 복음운동 했으면 좋겠다. 마천동에 진짜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늘 와서 램네프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 복음도 듣고 교제도 하고 캠프도 하고.’ 그게 내 고백이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누릴 축복이다. 오늘 기억하라. ‘내가 죽는 날에는 지교회 하나를 제대로 세우고 간다.’ 돈 내라는 게 아니다.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장로의 목표,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한다.